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국의 정치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비추는 현재의 거울인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6·25 전쟁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의 6·25 참전 70주년 연설에서 6·25 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항미원조’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국 지도자의 언급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25 전쟁은 명백하게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이다. 50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자를 낸 한국 역사상 가장 슬픈 전쟁이다. 북한의 남침이라는 객관적 역사의 증거 앞에서는 중국은 몰

역사 왜곡, 동북아 냉전 그리고 우리는?

론이고 북한 역시 남침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다르게 기술하는 역사 왜곡 현상이며 우리는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왜곡 현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일본은 제국주의·식민주의 시절 자행했던 많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후대에 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있으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동북공정 등을 통해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던 지역의 역사를 왜곡해 왔다. 여기에 최근 강조하는 중국몽을 통해 중화민족주의의 부활을 위한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현상이 동북아시아에서 유독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의 잔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밀어친 냉전의 여파와 현재까지도 그 냉전적 질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연유한다. 2차 세계대전의 발원지였던 유럽이 유럽 공동체로 발전한 것을 보면 참 대조적인 현상이다.

유럽의 경우 냉전 기간 중 역사와의 과

감한 화해를 시도하였다.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하여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역사의 양측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석탄 철강 공동체 형성을 시작으로 정치 공동체까지 이루어 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사죄를 구하고 또 그 반성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볼 때 역사를 대하는 유럽인들의 통찰력은 가히 반반을 만하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아직 냉전 중이다. 남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세계 1,2위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세력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동북공정 등을 통해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던 지역의 역사를 왜곡해 왔다. 여기에 최근 강조하는 중국몽을 통해 중화민족주의의 부활을 위한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현상이 동북아시아에서 유독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의 잔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밀어친 냉전의 여파와 현재까지도 그 냉전적 질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연유한다. 2차 세계대전의 발원지였던 유럽이 유럽 공동체로 발전한 것을 보면 참 대조적인 현상이다.

유럽의 경우 냉전 기간 중 역사와의 과

매우 불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어도 미중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이러한 미중 갈등이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의 분단선은 과거 유럽 동서냉전의 철의 장막처럼 견고한 미중 대립의 마지노선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 나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북 관계마저 한미 관계와 북중 관계 속의 틀에 갇혀 표류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도 더욱 어려워진다. 우리로서는 강대국들의 역사 왜곡 현상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속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남북 관계가 주도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제공할 것이지만 주변 강대국의 집요한 편 가르기, 북한의 잘못된 선택, 우리 국민의 분열 등이 중첩되면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민이 정부 정책을 튼튼하게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종교칼럼

가을날의 화양연화



송현
광주 중심사 주지

종교계에 몸담고 있다 보니 남들보다 더 자주 죽음을 접합니다. 자주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심근 경색으로 한 번 쓰러지고 난 후야 비로소, 나의 죽음을 지극히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죽는다’의 그 ‘언젠가’가 당장 내일, 아니 지금 이 순간 불쑥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겠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재조명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었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대신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내 곁을 지키는 죽음이란 친구를 가끔 발견합니다. 죽음은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항상

나와 함께하는 돌도 없는 친구입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잠시 완화된 덕분에 모처럼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가는 대화와 앞에 놓인 음식을 보며 ‘다들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생뚱맞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노골적으로, 아니면 이런저런 명분으로 치장된 욕망과 그런 욕망이 뿜어 내는 열기가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고 별반 다를 것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보며 그들 중의 한 사람인 나를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결을 떨어져 바라보았습니다. 순한번 들어가고 내쉬는 사이 사이에 죽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엔 인스타그램에서 행복한 순간을 보내는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질 무렵, 한갓진 잔디광장 같은 곳에서 여럿이 어울려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특별한 것도 없는 모습이 왜 그리 행복해 보이는지요. 아무런 이유없이 그 삶이 무척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본인도 느끼 바가 있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겠지만,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빛나는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뻔뻔하고 노골적인 욕망을 ‘노골적으로’ 숨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삶 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삶에서도 무상(無常)의 향기가 배어납니다. 생(生)이 가장 빛날 때, 사(死) 역시 자신의 존재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법입니다. 생과 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니까요. 대개 이럴 때 사람들은 이 행복이 사라질까 두렵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무상의 맛 또한 무척이나 감칠맛이 납니다. 뉘말까,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는 노을을 감상하는 기분? 다만 그 순간을 온전하게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행복은 붙잡으려 하면 달아나 버리는 파랑새와도 같습니다. 살아 있는 우리들이 무상을 느끼는 시간은 곧 죽음을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찾아오는 죽음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도 부질없지만,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을 애써 붙잡으려 허우적대는 것 역시 허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고요한 죽음이 과

연 빛이나 될까요? 내가 경험한 죽음의 문턱은 생각과 달리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불품없었습니다. 대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안쓰러운 정도로 욕망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설령 죽음의 본질이 그러할지라도 죽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담담한 마음을 키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내 곁을 떠날지라도 죽음만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친구이니까요.

왜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생각했을까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전제라 딱히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다. 그러나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 같은 것들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매우 새롭게 다가오는 가을날의 차가운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잔잔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의 화양연화(花樣年華)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감칠맛 나는 무상의 맛과 무색무취한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 또한 큰 행운이자 행복입니다.

“Viva la Vida”(인생이여 만세). 이 가을에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우리 모두의 화양연화입니다. 오늘 아침은 폴드 플레이의 “Viva la Vida”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社說

코로나 핑계로 취약계층 아동 방치해서야

광주 지역 취약계층 아동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민국(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방문 현황’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가정방문 관리를 받은 취약계층 아동은 1088명 중 193명으로 전체의 17.7%에 불과했다. 나머지 895명(82.3%)은 가정방문을 받지 못하고, 유선 상담으로 대체되거나 연기됐다. 그나마 전남 지역은 괜찮은 편이어서 방문 대상 아동 4460명 가운데 53%가 가정방문 관리를 받았다. 아동복지법 37조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속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남북 관계가 주도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제공할 것이지만 주변 강대국의 집요한 편 가르기, 북한의 잘못된 선택, 우리 국민의 분열 등이 중첩되면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민이 정부 정책을 튼튼하게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광주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가정방문 상담이 거의

100%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사실상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광주 자치구 담당자들은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한 사유로 ‘코로나 감염 위험’을 내세워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방문 현황’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가정방문 관리를 받은 취약계층 아동은 1088명 중 193명으로 전체의 17.7%에 불과했다. 나머지 895명(82.3%)은 가정방문을 받지 못하고, 유선 상담으로 대체되거나 연기됐다. 그나마 전남 지역은 괜찮은 편이어서 방문 대상 아동 4460명 가운데 53%가 가정방문 관리를 받았다. 아동복지법 37조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속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남북 관계가 주도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제공할 것이지만 주변 강대국의 집요한 편 가르기, 북한의 잘못된 선택, 우리 국민의 분열 등이 중첩되면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민이 정부 정책을 튼튼하게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광주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가정방문 상담이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중형 확정 역사의 교훈으로

대법원이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장인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그동안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10년 넘게 끝이 난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또한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판결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조만간 파기 환송심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이 말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것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첨은 편가 아니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아울러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는 대부분 병역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병역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데, 국가 존립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성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하지만 징정 신성하다고 믿는 이는 얼마나 될까?

납세도 국민의 의무지만 처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탈세를 하는 이들이 많고, 병역 또한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다 보니 아직도 버리가 여전하다. 본인 또는 아들의 병역 비리에 발목이 잡혀 망신살을 넘어 패가에 이른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연예인들 이 그동안 얼마였던가. 그렇게도 ‘신성한 병역’이 무덤덤하게 버려지는 서민들도 대단히 안타깝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은 입대하지마자 휴대전화에 전역일 계산 앱을 깔고, 군 생활이 얼마 남았는지 세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상량수 청년들은 육군보다 육체적으로 편하다는 공군이나 해군에 들어가기 위해 현혈을 하고 한국사능력시험 점수를 취득하는 등 입대 스펙까지 쌓고 있다. 심지어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군 생활을 허송세월이나 인생 최악의 시기로 여기기도 한다.

군 입대를 꺼리는 것은 수백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 병역 제도는 양인(良人) 개병제로 천민·노비를 제외한 양반·상인·농민 등 모두가 병역 대상이었다. 하지만 명종 때는 절에 들어가 종이 되면 병역을 면해 주었기 때문에 승려 신분증인 도첩을 사들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자연히 절의 수도 수천 개나 늘어났다고 한다.

재력 있는 양반이나 상인들이 돈을 주고 노비를 사서 대신 군역을 지도도록 하는 대립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 제도가 성행하

병역 거부

자 나중에는 합법적으로 포를 주고 군역을 면제받는(방군수포제) 사람들이 마저 생겼다. 이런 가운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군대를 피하기 위해 권세가의 노비로 들어가거나 정처 없이 떠도는 부랑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번 주부터 양성적 병역거부자 63명이 교도소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병역 기피자로 처벌받거나 사회의 냉대를 받아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새롭게 신설된 36개월의 대체 복무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채희송 사회부장 chae@

기고

독서는 노벨상의 바로미터



오창식
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부장

전 지구촌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는 암울한 상황임에도 자연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덧 만추의 계절이 다가와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들뜬에는 황금빛 곡식들이 결실을 맺어 추수가 한창이고, 거리의 나무들에는 열매들이 가지마다 빼곡히 들어차 있다.

역사도 미래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 가을은 인류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올해 한국은 나노 입자에 대한 연구로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가 노벨 화학상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아쉽게도 선정까지 이어지지 않

았다.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OECD에 가입한 지 벌써 스물 네해가 되었지만 한국은 노벨 평화상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한 명의 수상자도 배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매번 반복되는 아쉬움에서 벗어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노벨상 최빈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흑자는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 미흡, 주입식 교육,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을 이유로 꼽으며 시스템과 정부의 정책을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유사한 교육 체계의 일본과 우리보다 투자가 늦은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은 수상자를 배출해 내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어쩌면 핵심은 보다 가까운 우리의 일상 생활에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거기에 반드시 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표된 OECD 주요국가와 노벨상 수상 국가의 월간 독서량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0.8권으로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166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 독서량을 보면 미국이

6.6권, 일본은 6.1권, 프랑스는 5.9권으로 우리와 제법 격차가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국가들은 노벨상 수상자 또한 각각 329명, 63명, 26명으로 많이 배출했다. 독서와 노벨상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그 약간의 독서량마저 더 줄어든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가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독서라는 여가 활동은 한국인들의 머릿속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여가 시간은 늘어났지만 한국인에게 독서를 위한 시간은 부족할 듯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지속으로 발생한 답답함과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연휴와 주말을 이용해 관광지로 떠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언론도 SNS를 활용한 관계 유지와 운동, 봉사 활동이나 가족 모임 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 조언할 뿐 독서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는 독서에서 나온다. 삶을 온통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 모두 독서에서부터 시작된다. 변화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지식과 현재까지 축적된 시도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가치는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 있다며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이유는 변혁의 핵심이 선인들의 지혜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독서는 이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노벨상 수상자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 엄청난 독서가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 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마음에 피로가 찾아온다면, 가장 위안이 되는 활동으로 독서를 추천하고 싶다. 지금의 상황을 마음의 양식을 쌓는 기회로 삼는다면 노벨상 강국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이 낙양귀지(洛陽貴紙·낙양의 종이 값이 천정부지로 오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독서를 사랑하는 나라로 알려질 그런 날을 상상해 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독점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